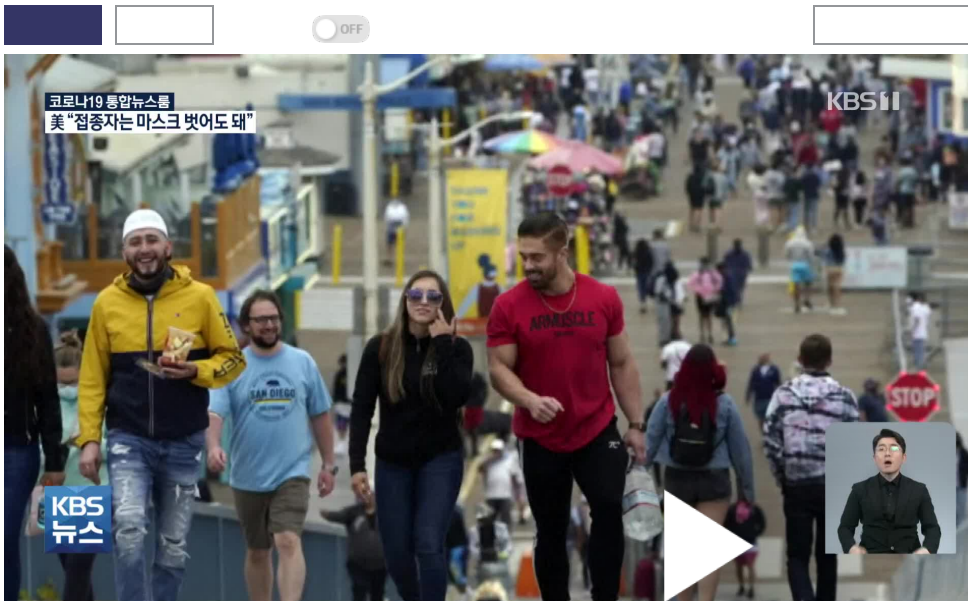


‘코로나19’ 팬데믹

미국 “백신 접종 완료자 마스크 벗어라”…시기상조 논란도



+ 가 -



박범계, '이성운 공소장 언론 유출' 진상조사 지시

[앵커]

반면 미국은 안정을 찾아가고 있습니다.

백신 접종을 완료한 사람은 마스크를 벗어도 되고 거리두기도 할 필요 없다는 새로운 지침이 나왔습니다.

물론, 아직은 그럴 때가 아니라는 반론도 만만치 않습니다.

워싱턴에서 김양순 특파원이 보도합니다.

[리포트]

코로나백신 접종이 시작된 지 5달 만에, 미국이 마스크를 내려놓기 시작했습니다.

[바이든/미 대통령: "오늘은 대단한 날입니다. 백신을 모두 접종한 사람이라면 이제 더 이상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됩니다."]

이 시각 헤드라인

코로나19 현황



Ultimate Game Changer
2022 대통령선거

많이 본 뉴스

코로나백신을 1차와 2차 모두 맞은 사람에 한해 실내에서도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되고, 사회적 거리두기 제한도 받지 않습니다.

[로셀 알렌스키/미 질병통제예방센터 국장 : "우리는 오랫동안 이 순간을 기다려왔습니다. 백신 접종을 모두 완료했다면 이제 코로나19 때문에 중단했었던 일들을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."]

다만, 지하철 등 대중교통 이용시와 주정부가 지정한 병원 등 공공장소, 그리고 사업주가 요구할 때는 마스크를 쓰도록 했습니다.

사람들의 반응은 엇갈립니다.

[시민 : "이제야 깊은 숨을 쉴 수 있겠군요."]

[시민 : "더 많은 미국인들이 백신을 맞을 때까지 마스크 쓰는 것을 계속해야 한다고 봅니다."]

뉴욕타임즈가 감염병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앞으로도 6개월 이상은 실내에서도 마스크를 계속 써야한다는 의견이 70%였습니다.

백신 접종을 완료한 이들이 전체 인구의 80%는 되어야 마스크를 벗어도 된다는 겁니다.

[매트 윌리스/마린 카운티 보건소 : "마스크를 벗어도 된다는 건 백신을 맞게 하기 위한 인센티브입니다. 코로나 상황이 종료되어서 마스크를 벗어도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."]

백신을 모두 맞았다면 마스크를 벗어도 된다는 지침은 코로나 유행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기 위한 일종의 이정표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.

이 지침의 성패는 아직 백신을 맞지 않은 사람들에게 대한 접종률을 얼마나 더 높이느냐에 달려있습니다.

워싱턴에서 KBS 뉴스 김양순입니다.

촬영기자:한규석/영상편집:고용용/그래픽:한종현 김지훈/자료조사:권도인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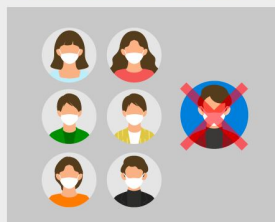
오미크론 대응 국민행동수칙



★ 예방접종(3차접종) 적극 참여



★ 3밀(밀폐·밀집·밀접) 환경에서
보건용 마스크(KF80·KF94) 착용
★ 환기(일 3회, 10분 이상) 실시



★ 대면접촉 줄이기

- 사적모임 6인 이내
- 다중이용시설 이용시간 짧게
- 대화시 마스크 착용

Ultimate Game Changer
29.22 대통령선거

여론조사 결과를 포함해 대선 관련한 다양한 뉴스 콘텐츠를
KBS 대선 특집 사이트에서 볼 수 있습니다.

KBS가 손수 골랐습니다.
네이버에서도 보세요.



ysooni@kbs.co.kr



‘코로나19’ 팬데믹



오늘의 HOT클릭!



